소비침체·이자·인건비·배달 수수료 '4중고'…벼랑 끝 자영업자

폐업자 수 91만명 폐업률 9.5%…연체율 0.72% 10년 내 최고치 기록
인건비 줄이려 '알바 쪼개기' 성행…나홀로 '사장' 1년 새 9000명 늘어

지역 자영업자들이 높은 은행 이자, 인건비, 배달 수수료 부담에 더해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폐업을 결정하거나, '알바 쪼개기'로 경영비용을 줄이는 등 발버둥 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 역시 91만1000명으로 1년 전(80만명)보다 11만1000명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보니, 이른바 '불황형 창업'이 늘면서 1년 전보다 자영업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기준 음식업과 소매업을 비롯한 광주지역 14개 업종 사업자는 24만825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4만2943)보다 2.19% 늘었지만, 이들 중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사업자는 1만3361명으로 전년(1만4606명)보다 8.5% 줄었고, 1년 이상의 경우 9.7%(2만7427명→2만4753명), 2년 이상의 경우 0.82%(2만3423명→2만3231명) 줄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도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연체율은 올 2월 0.72%까지 치솟았다.

지난 2021년(0.34%), 2022년(0.35%), 2023년(0.58%)에 견줘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 여파를 버티지 못한 결과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봉착한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 등이 지난해 9월 종료되면서 자금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배달 수수료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달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2.5%로, 1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배달수수료 1250원이 빠져나간다. 이마저도 장사가 잘 될 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장사가 안되다 보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는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알바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간 광주시 주간 1~17시간 이하 근무 단기 근로 취업자는 지난 5월 기준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6만6000명) 대비 30.3% 올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곡성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1)씨는 "최근 최저임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여간 끊임없이 오르는 최저임금때문에 피크타임인 점심시간 3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1명 고용하고 있다"며 "카페 운영 4년차에 개업 직후 코로나19가 닥쳐 빚밖에 남은 것이 없다. 하루하루 이자 갚기도 어려워 장사를 접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을 쓰지 않고 혼자 근무하는 '사장님'들도 1년 새 급증했다.

광주시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명으로, 전년 동월(10만 1000명)에 견줘 9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보해양조 '물' 통했다…'몽드셀렉션' 대상·은상 수상

미네랄 워터 101, 102·보해소주 지하 253m 암반수 '세계적 인정'

보해양조(대표 임지선)는 세계적인 품평회 '몽드셀렉션'에서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7일 밝혔다.

몽드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에 설립된 국제 품질 연구소로, 전 세계 제품을 대상으로 맛과 품질, 포장 등을 평가해 시상한다.

보해양조는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지하수에 '보해 미네랄 워터 101'과 '보해 미네랄 워터 202'라는 이름을 붙여, 보해소주와 함께 출품했다.

그 결과, 생수 및 청량음료 부문에서는 대상을, 증류주 부문에서는 은상을 수상했다.

보해는 이번 수상의 비결을 '뛰어난 품질의 물'로 꼽았다. 보해는 장성 노령산맥 253m 지하 암반수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해양조가 사용하는 지하수는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에 견줄 만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게 보해 설명이다.

물 속의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 농도를 의미하는 경도에 있어 보해 제품은 경도가 높아,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보해는 덧붙였다.

2024 몽드셀렉션을 수상한 노령산맥 253m 천연 암반수와 보해소주. <보해 제공>

보해양조 장성공장 정문에는 지하수 음용대가 설치돼 있는데, 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신뢰하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물은 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수한 물맛이 술의 품질을 좌우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이번 몽드셀렉션 수상을 통해 보해양조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해양조는 전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고객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원한 파자마 입고 숙면하세요"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본점 9층 이벤트홀 홈웨어 브랜드 '폴앤난나' 팝업 매장에서 여름 홈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팝업 매장은 오는 7월11일까지 운영되며, 아동용부터 임신부, 시니어 제품까지 온 가족이 함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홈웨어와 의류를 함께 판매한다. 행사 기간 중 20만원 이상 구매 시 '9부 파자마 팬츠'를 선착순 증정하며, 세트 상품 구입 시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삼성전자, 서울대와 AI 인재양성·기술 경쟁력 강화 나선다

'AI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삼성전자가 서울대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 서울대 공과대 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은 AI 공동연구센터에서 향후 3년간 AI 최신 기술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는 온디바이스 AI, 멀티모달 AI 등을 위한 세부 기술 확보로 구성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4에 서클 투 서치, 실시간 통역, 포토 어시스트 등 다양한 AI 기술을 탑재했으며, 비스포크 AI, AI TV 등을 출시하며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분야에서 서울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AI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우수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채용 연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44.10 (-14.32)	↓ 금리 (국고채 3년)	3.212 (-0.040)
↓ 코스닥	858.96 (-3.23)	↑ 환율 (USD)	1381.20 (+1.90)